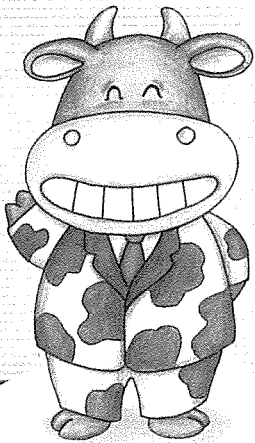


BUSINESS

NEWS



대한제당 무지개사료(주)

낙농-상반기, 육우-하반기, 신제품 출시 예정

대한제당 무지개 사료 축우팀에서는 BOCM PAUL사와 기술 제휴를 통하여 상반기에는 낙농농가를 위한 착유우 신제품을, 하반기에는 비육우 농가를 위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무지개사료는 낙농 농가가 착유우의 유량의 증대를 위한 개량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번식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영국의 BOCM PAUL사와 기술 제휴를 통하여 번식율 개선으로 가축의 생애생산력을 높여 농가의 숨어있는 비용을 찾아 주고자 '라이프타임' 시리즈 제품을 3월에 출시했다. 오승훈 축우PM은 "이번에 출시하는 '라이프타임'은 에너지수준을 극대화하여 비육초기 에너지 부족현상을 최소화하고, 번식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특수한 첨가제를 배합하여 번식성적을 개선시켰다"며 "낙농가들은 이번 '라이프타임'을 통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무지개 사료와 BOCM PAUL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OCM PAUL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만들어진 QRD(어린송아지), PCR(건유우), 골든팻(유지방 증가) 등의 제품 등은 낙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무지개 사료는 미산 쇠고기 수입 및 DDA, FTA로 비육우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과 함께 농가들도 거세를 통한 장기비육으로 고급육을 생산하여 브랜드화로 가는 농가와 고숙 성장을 통한 단기 비육으로 가는 농가들로 나뉘질 것으로 판단, 새로운 비육 프로그램과 신제품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기존의 고급육 프로그램과 단기 비육의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하여 각각 농가에 맞는 프로그램과 신제품으로 다가가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비육농가들은 BOCM PAUL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육우의 기술력에 또 한번 매료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사료공업(주)

62 영업전진대회 개최

대한사료공업(주)(대표이사 : 김덕명)은 지난 1월 20 ~ 21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한국생산성본부연수원에서 "고객중심의 경영,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62회기 영업전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김덕명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고유가, 고원가시대와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공장의 제품 첫 출시, 인천공장 HACCP 인증, 자돈 신제품 판매활성화 등의 업적을 치하하면서 2006년 병술년에도 노사협력을 통하여 팀소작을 활성화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신제품 개발과

변화된 시장에 적응하여 품질의 고
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
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61회기 실
적평가 및 영업방침 설명을 통하여
시장, 수요, 제품, 기술의 변화 등에
대한 철저한 환경분석을 통하여 고
객의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인 전략을 수립하고 사료시장의 침
체분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력해 줄
것과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위한
팀제도 활성화의 지속과 고객만족
서비스의 확대, 연대 마케팅을 통한
사양가와 회사, 유통의 체계적인 조
직활성화를 이루어 고객의 만족과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이번 전진대회는 전
년회기의 평가분석, 62회기 영업방
침, 본부 및 축종별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한동

바이오 연구소 설립

(주)한동(대표이사 이원규)은 지난
2005년 12월 16일부로 (사)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
연구소인“(주)한동 바이오연구소
(Han Dong's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가 정식으로 인
정받아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시작
했다.

최근 농축수산물에서 농약성분, 중
금속 및 항생제 등의 잔류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
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농축수산
물 생산에 필요한 고기능성 친환경

적인 소재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적 요청에 따
라 (주)한동에서는 동물약품 제조
업을 모체로 천연물질, 자원, 미생
물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생산성, 안정성
을 높이고 악화된 자연환경을 개선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이
바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번 연구소로 전
격 인증을 받음에 따라 항생제의 잔
류 규제로 인한 대체제 물질 개발
및 천연 미생물, 천연물질, 유전공
학, 기존 개발된 약품소재 등의 고
기능성 신제품 개발하여 축산 농가
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위
생적인 축산물 보급에 앞장설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한동 바이오 연구소는 미생물관련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항균작용이 우수한
미생물로 구성된 사료첨가용 생균제
와 축사내 악취, 파리 및 유해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균제제 우선적
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CJ Feed

제3세대 아미노텍 '엔프로텍'

변화하는 낙농 환경에 국내 낙농업
계가 나아갈 방향을 놓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 어려운 낙농산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제3세대 아미노텍
‘엔프로텍’” 낙농사료가 희망을 주
고 있다.

CJ Feed는 ‘비분해단백질 처리기
술’과 ‘최적발효유기물 공급시스
템’이라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제
3세대 아미노텍 ‘엔프로텍’” 낙농
사료 공급과 함께 ‘SMART
2005’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함으
로써 목장에 더욱 정확한 급여 시
스템 제공에 나섰다. ‘비분해단백
질 처리기술’이란 고능력우에게
부족하기 쉬운 아미노산(라이신+
메치오닌)을 소장에 직접 공급함
으로써 젖소가 갖고 있는 유량 유
전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기술이다. CJ Feed의 또 다른 기
술인 ‘최적발효유기물 공급시스템
기술’이란 반추위내단백질과 에너
지의 분해속도를 동기화시킴으로
써 젖소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한 대사성 질
병을 예방하여 번식을 손조롭게 하
는 기술이다. 또 ‘스마트 2005’
급여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사실
대부분의 목장에서는 배합사료반
조사료반을 젖소에게 먹이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 2005’ 급여프로
그램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착유사료(배합사료)
와 조사료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CJ Feed는 지난
해 준비한 이같은 제품과 프로그램
으로 어려운 낙농업계의 탈출에 돌
입한 것. CJ Feed는 이에 따라 낙
농컨설팅 조직을 정비하고, 고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하겠다
는 계획이다.